

포장산업에서 디자인산업으로: 디자인·포장진흥법

국가가 디자인산업을 육성, 진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을 통해 활성화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디자인·포장진흥법」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됐다. 당시 법조문을 살펴보면 디자인을 “인간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의 창조 및 개선 행위”이며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3조에는 디자인·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강조하면서, 상공부 소속 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3개 기관을 통합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법은 1991년 7월 15일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법률 제4321호)으로 개정되면서, 우수디자인 상품 또는 우수포장상품 선정·시상 및 선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를 지원하게 했다.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의 행사는 전문회사의 설립을 지원하는 근거로 마련되었다. 이후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제명을 「산업디자인진흥법」

(1996년 12월 30일, 법률 5214호)으로 개정하였다. 이때 동법의 목적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 촉진과 그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지어, 포장 용기 및 제작 기술 분야를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디자인 중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포장디자인을 시각디자인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산업디자인 분야로 정의하였다.

이후 1999년 2월(법률 제5773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의 등록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디자인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이 적은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이후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개발 사업과 산업디자인 통계 조사를 신설,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2001년, 법률 제6415호)하였다.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서비스 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관련한 지원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였고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신청근거를 마련(2014, 법률 제12928호)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디자인 정책 역시 관련 법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방향을 달리했다. KIDP는 1992년 12월 산업디자인·포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제1차 진흥종합계획(1993~1997)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한다. 생산 기술을 선도하는 독창적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려 했고, 기업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및 연수생 해외 파견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제2차 진흥종합계획(1998~2002)은 세계 일류 수준의 디자인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산업디자인 전문 인력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육성하고,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제3차 진흥종합계획(2003~2007)은 세계 7대 디자인 선진국, 수출국으로의 발전을 꿈꿨다. 정부 차원에서는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건전한 소비 문화를 심어주고자 했다. 제4차 진흥종합계획(2008~2012)은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